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4. 12(목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항공산업과	담당 자	과장 박명주, 사무관 좌명한 • ☎ (044) 201-4223, 4224
보도 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반려 하루 전날 자문...미리 짜놓고 불허?” 보도관련

-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*, 전문기관 검토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하였으며,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면허 자문회의 결과를 회의개최 다음날 즉시 발표한 사항입니다.

* 정책 토론회 등에는 면허 신청 2개사, 기존 항공사, 관련 전문가 등이 모두 참석

- 면허자문회의의 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회의 직전일 약 50명의 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추첨 선정하고 있으며, 이번 에어로케이·플라이양양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부족하여 면허반려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.

< 보도내용 (4.12, MBN) >

◆ 반려 하루 전날 자문한 국토부... 미리 짜놓고 불허?

- 항공사 유치를 바라는 강원도청과 지역주민은 배제하고 신규 면허발급에 반대하는 8개 기존항공사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
- 반려결정 하루전날에야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열기도 전에 면허를 주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좌명한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